

“적격심사 개정안은 최저가 낙찰 확대 꼼수”

덤핑입찰로 중소기업 출도산 우려 지역 건설업계 광주 설명회 보이콧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적격심사 낙찰제 개정안 설명회’를 보이콧했다. 적격심사 개정이 지난해 국회에서 2년간 유예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전남·전북도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 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적격심사낙찰제 개정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이 건설업체 간 차별력이 약하고, 운찰제(運札制·입찰 운에 의해 낙찰받는 것) 성격이어서 이의 개선을 목적으로 적격심사 낙찰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낙찰하한율(예 정가격의 80%)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경력기술자 등 공사수

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제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적격심사 낙찰제도 개선을 빌미로 공사비를 최저가로 끌어내리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덤핑입찰 방식을 위해 최저 기준선은 마련했지만 골격은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어서 낙찰률이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 확대 시행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건설업계 300여명은 이날 ‘최저가 확대 꼼수 적격심사 개정 즉각 철회하라’, ‘중소 건설업체 말하는 개정안 철회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행사장 입구를 봉쇄했다.

전남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는 “운찰제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지난 11일 광주시 동구 KT 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설명회’를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확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 악화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출도산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개정안은 공사수행능력의 차별력보다 최저가 낙찰방식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

는 최저가 방식이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지역의 중·중소업체의 대기업 중 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예정가격과 최저실행가격 비공개는 발주기관 공무원의 부패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대구(15일), 부산(16

일), 서울(24일)에서 설명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조달청과 LH 등을 통해 15건 내외의 시범 시행한 뒤 9월 중 입찰제도 전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역 중소기업 연합회 측은 설명회 불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 매일식품·보성녹차영농법인 한국 식품대전 금·은 석권

전남도는 순천 매일식품과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 등 2곳이 최근 열린 대한민국 식품대전 ‘제1회 아그리젠토 코리아상’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그리젠토상은 혁신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엄선해 지난해 10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달 선정하는 상이다. 농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농업도시인 아그리젠토의 이름을 따 상을 제정했다.

이번 식품대전은 현재까지 선정된 8개 업체를 재심사 한 이른바 왕중왕전이다.

순천 매일식품은 밀로 간장을 담가 염기를 제거하고 농축 분말화 해 조미료 중 가장 내기 어려운 감칠맛 함량을 높은 ‘아지미’(MG50/밀단백질

추출물)를 개발했다. 아지미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 함량이 46.3%로 국내 대부분 제품이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월등한 수치다.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글루타민산 나트륨(MSG) 대체식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조과정은 특허 등록됐다.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은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해 녹차잎에서 기름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초임계추출법’을 자체 개발해 녹차 식용유(제품명 보성녹차유)를 생산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상이 다른 지역과 비교 경쟁력 등에서 밀렸던 전남 식품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청년일자리, 창업으로 뚫는다

창조기업지원사업 인기...93건 응모해 1.94:1

“일자리, 청년창업기업으로 뚫으세요.”

심각한 취업난의 돌파구로 청년창업기업이 인기다.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청년창업지원사업 마감 결과, 50건 모집에 93건이 응모해 1.94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33건, 지난해 37건 지원한 것과 비교해 관심이 높아졌다. 이

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는 하반기 30건을 추가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시제품 생산 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응모를 분석한 결과, CT(문화예술)와 IT(정보기술) 분야에 각각 36건, 34건이 접수돼 청년층의 기술 아이디어의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어

최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등 ET(환경기술) 분야에도 16건이 몰렸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50곳을 선발해 창업자금 및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 확정되면 과제당 최소 1000만~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광주지역 10개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성공 창업 컨설팅을 받는다.

또 10월 중 창업페스티벌을 열어 시제품 전시와 창업 선·후배간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기청-지역 특성화고 협약...330명 인력양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역 특성화고교 10곳과 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에 나섰다.

광주전남중기청은 13일 2012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광주·전남지역 특성화고교 10개교와 지역 우수 중소기업 128개사가 ‘취업·채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 330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교는 올해 신규 지정된 담양공고, 순천효산고, 여수공고, 여수전자화학교 등 4곳을 포함해 광주 3개교·전남 7개교 등 총 10개 고교다.

중기청은 참여기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교에 매년 평균 1억원을 지원해 실습기자재·훈련과정개발·교사기술연수 등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을 마치면 현장 배치해 기업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더위 오기전에 몸보신

때 이른 더위 탓에 보양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서 한 여성 고객이 수삼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특성화고 26명 삼성 협력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삼성그룹의 첫 고졸공채에 대거 합격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특성화고 학생 26명이 삼성그룹 고졸공채에 최종합격했다. 그룹사별로 삼성전자 15명, 삼성생명 5명, 삼성모바일 4명, 삼성화재 1명, 삼성에스원 1명 등이다.

합격자는 광주 전자공고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공고 4명, 전남공고 4명, 광주여상 3명, 전남여상 3명, 동일전자정보고 2명, 광주자연과학고·금과공고·송원여상이 각각 1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취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삼성그룹 맞춤형 직무교육과정(2개반 80명)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 과장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0 22 26 33 36 37 25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51,120,33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0,617,797
3 5개 숫자 일치	1,621,968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환전 고객에 최고 60% 우대

광주은행 ‘여수엑스포 환전 페스티벌’

KJB 광주은행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과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환전과 송금 고객을 위한 ‘월플 투여수엑스포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이며 환전과 국외송금을 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환전, 송금, 여행수수료 구매, 외화수표 매입 의뢰 고객에게는 통화와 금액에 따라 최고 60%까지 환율을 우대한다. 특히 환전 고객이 여수엑

스포 관람권이냐 관람 인증 샷을 제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80%까지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미화 500달러 이상 거래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엑스포의 성공 개최 지원의 마음을 담아 고객에게 파격적인 환율 우대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모여 ‘한마음’

중기중앙회 주간행사 다채

‘제24회 중소기업 주간’(14~18일)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행사가 치러진다.

올해 행사는 ‘도전의 50년 희망 100년 중소기업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은행 등 25개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4일 ‘2012 제1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광주 중소기업인 대회(15일), 협동조합 및 유관기

관 임직원 한마음대회(16일)가 열린다.

또 광주은행 주최 세부회계 중소기업 직무연수(17일)와 우수중소기업 초청 간담회(18일), 중소기업 금융전문가 양성 강의도 연다.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유공자와 모범 중소기업인,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등 총 36명에게 표창을 한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본부장은 “중소기업 주간 행사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5월 셋째 주에 열린다”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희망 100년을 열어가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납세자 권익 존중해 주세요”



‘제4기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위촉식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다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외부위원 위촉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은 최근 ‘제4기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최근 정부종합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가졌

다. 이날 서국환 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새로 위촉한 납세자권익존중위

원회 외부 위원 및 위원들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또는 회계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